

# BTS, 경제적 파급효과도 '다이너마이트'

〈방탄소년단〉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 달성 관련  
문광연 문화산업연구센터 분석

생산 유발 효과 1조2324억원  
부가가치 유발 4801억원  
고용 유발 효과 총 7928명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 이하 문광연)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핫 100' 1위를 차지한 것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이 숫자에 달한다고 7일 추산했다.

이번 추산치는 문광연 문화산업연구센터(센터장 박찬욱 연구위원)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규모,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구글 트렌드' 검색량 등을 종합해 '다이너마이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다이너마이트'로 인한 직접적 매출 규모는 2457억원, 이와 관련된 화장품, 식료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는 3717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에 대한 산업 연관 효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232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801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총 79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분석 결과는 최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이동이 제한되고 현장 콘서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효과 부문을 제외한 결과이다.

아울러 직접적 매출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콘서트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순회공연 매출액을 제외하고 온라인 콘서트 매출액을 적용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

문광연은 "향후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등의 상황에 따른 상승효과 등을 추가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네 차례 정상에 오른 뒤 최근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는 '핫100'에서까지 정상에 오르면서 명실상부 세계적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방탄소년단과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 등 한류 콘텐츠를 산업의 팔목할 만한 성장에 힘입어 국제지수도 상승했다.

지난 9월 2일 유엔(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0 글로벌 혁신지수(G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우리나라는 작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첫 10위권 진입이며, 8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이런 결과는 특히 문화산업 성과와 관련된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지수'가 작년 42위에서 올해 19위로, 23단계 상승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문체부는 파악했다.

세부적으로는 '영화 제작'이 22위에서 13위로 큰 폭 상승했다. '문화·창의서비스 수출'은 54위에서 53위,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시장'은 19위에서 18위, '창의적 제품의 수출'은 16위에서 14위로 각각 상승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번 분석은 방탄소년단이 이룬 성과가 경제적으로도 그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했는데 그들이 이룬 성과는 이 숫자를 훨씬 넘어섰다"며 "그들의 음악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일종의 치유제가 되었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이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 춘향제 브랜드 뮤지컬 유튜브 채널로 즐겨요

'춘향은 살아있다', 11일  
남원와락에서 실시간 중계  
본 공연은 무관객 진행

남원춘향제 전 위원회는 제90회 춘향제의 대표브랜드 공연 뮤지컬 '춘향은 살아있다'를 11일 오후 8시에 유튜브 채널 '남원와락'에서 실시



간중계하며, 본 공연은 관한투각에서 펼쳐지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객·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춘향은 살아있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랑이야기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작품으로, 이몽룡 역에 GOD 손호영, 성춘향 역에 그룹 나니아의 타니아(채송화), 변학도 역에 윤세웅

10~13일 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등도 생중계  
춘향국악대전도 무관객으로

이 출연하며, 15명의 앙상블과 함께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이 시작된 광한투각을 배경으로 색다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은 전통창극 재해석의 권위자이자 국립민속국악원의 예술감독을 역임했던 지기하 연출가, 영화 쌍화점과 구름을 버서난 달처럼의 OST를 작곡한 김백찬 음악감독 등이 참여한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렸으며, 당초 100명의 최소 관객을 선정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관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제90회 춘향제는 새로운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해 온라인 채널을 신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축제를 처음 시도하면서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축제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도 10일부터 13일까지 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등이 남원와락을 통해 생중계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의 신실로인 춘향국악대전도 무관객으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 예술의 디지털 시대 열다

디지털 문화콘텐츠 선제적 개발 통한 지역문화발전

전주문화재단, 오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은 8일 전북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선제적 개발을 통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진다.

이번 협약식에는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서와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보통신과 디지털 적응력을 향상시킬 다양한 교육과, ICT 기술과 기초예술과의 융·복합 문화예술콘텐츠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경쟁력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과 ICT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문화예술의 기록·복원·재현·창작·유통 등에 관련된 기술투자와 교육

▲지역예술단체의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업컨설팅 지원 ▲지역문화예술인과 ICT기술 보유업체와의 협업 교류 지원 ▲문화예술분야 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책사업 발굴 및 공동 대응 등이다.

업무협약 후 첫 사업으로 '인미디어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에 지역 예술인의 교육 및 전주지역 시각 예술가를 위한 공간과 기술을 이용한 VR뮤지엄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백옥선 대표이사서와 서문산성 원장은 "문화예술 지원과 기초예술인의 역량을 보유한 재단과 다양한 ICT 기술을 갖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의 새로운 예술의 디지털 시대가 열렸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문화예술콘텐츠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단절예방 영상 공모 시상식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는 경력단절예방의 날을 맞아 도내 9개 새일센터와 함께 링크(W-link) 캠페인과 경력단절예방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W-link 의미는 '여성(Woman)'과 '일(Work)'의 'W'와 '있다(Link)'의 'ink'를 조합한 말로 2018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캠페인 홍보 브랜드로 선정됐다.

'경력단절예방의 날'은 여성가족부가 일하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경력단절이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2018년도에 처음 마련됐다.

2019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 여성이 경력유지를 위해 희망하는 정부정책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 다음으로는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26.5%)으로 이는 경력단절 후에 일자리를 찾아주는 정책보다 경력단절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센터는 경력단절여성 없는 전북도 선포식 및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포럼, W-link(링크) 캠페인 5행시 공모, 전북도내 공공기관 집광관 W-link(링크)캠페인 표출, 경력단절예방 영상 공모전, 경력단절예방 라디오 캠페인 (TBN전북교통방송), 전북도 14개 시·군 경력단절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수상작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총 4편의 작품을 선정. '얼마는 가능성입니다' 김가영씨의 작품이 최우수상 수상 영광을 안았다. 이밖에도 우수상(이이정 그리고 시작 박지수)과 장려상(간강한 사회를 향한 도움닫기 정현빈·박지수, '지금까지 뭘 했을까요?' 이정미)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